

‘건강 지킴이’ 장성, 촘촘한 의료복지 눈에 띄네

감염병 예방, 여성·어린이 지원… 농촌왕진버스 등 주목
김한중 군수 “군민 건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정 추진”

장성군의 촘촘한 의료 복지 정책이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다양한 의료 복지 정책 가운데 군민들의 반응이 가장 좋은 분야는 감염병 예방 관리다.

현재 군은 선제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국가예방접종 관리, 감염취약주민 결핵 관리,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감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이목을 끈다.

휴대용 방역장비 무상 대여, 임신부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등 촘촘한 지원도 펼치고 있다. 군은 올해 ‘감염병 관리 사업 평가’에서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

여성·어린이 특화 지원도 주목된다.

현재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맘케어 비대면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스마트워치’, 체중계, 혈압계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임신부의 건강지표를 측정하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시 확인한다.

출산 전 필라테스·임신·출산교실과 임신부를 위한 비대면 우울 관리 시스템 운영도 호응이 높다. 축제장 ‘스마트 수영장’ 설치, 다문화가정 전문상담, 119 안심콜 협력체계 확립 등 세심한 지원도 돋보인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다. 군은 올해 전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여성·어린이 특화 우수사례로 선정돼 2년 연속 수상을 기록



장성군은 선제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국가예방접종 관리, 감염취약주민 결핵 관리,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삼계면 농촌왕진버스를 찾은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역민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병원 동행 서비스’ 모습.

했다. 올해 7월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군이 주력하는 부분은 의료 접근성 향상이다. 올해 총 4회에 걸쳐 ‘찾

아기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했다. 평소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농촌 주민 2000여명이 ‘농촌왕진버스’에서 시력 검사와 양방 진료 서비스를 받았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병원에 갈 수 없는



어르신을 돕는 ‘병원 동행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가족·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어려운 65세 이상 주민에게 왕복 차량과 동행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한중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활기차게 살아가는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지난 10월 27일 대통령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업, 대학 연구진 등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차세대 전력망 혁신 및 인재 양성·창업 생태계 구축 기업간담회’를 진행했다.

나주,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본격 시동

켄텍 중심 오픈캠퍼스·분산에너지 실증 클러스터 구축

전력반도체 국산화 등 에너지 신산업 허브 구축 ‘속도’

나주시가 국가 전략 프로젝트인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사업 예산을 최종 확보하며 차세대 전력망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 강화, 전력반도체 국산화 기반 구축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시에 따르면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은 차세대 전력망(K-GRID)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를 중심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전남대학교가 참여하는 ‘오픈캠퍼스’ 체계를 마련해 교육·연구·실증을 연계한 전문 인재 양성이 추진된다.

사업은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특히 켄텍 내에 구축되는 ‘분산에너지 실증 클러스터’는 차세대 전력망 기술 실증과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시설로, 글로벌 K-에너지 스타트업 인턴십 운영을 통해 국내 청년들이 세계 에너지 기

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무 중심 교육 환경도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벤처기업 유치, 글로벌 공동 연구 확대, 에너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 생태계를 확장한다. 이를 기반으로 나주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창업 허브의 성장도 기대된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력반도체 분야를 국산화하기 위해 고전력반도체 분자층 수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축이다.

고전력반도체의 장시간 수명 보증을 위한 평가 기술 고도화와 기업 지원 체계 마련은 국내 전력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27일에는 대통령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업, 대학 연구진 등 100여 명이 켄텍에 모여 ‘차세대 전력망 혁신 및

인재 양성·창업 생태계 구축 기업간담회’를 열고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전력망 혁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해 연구·기술개발·실증에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에너지 자립 체계’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여기에 인공태양 연구시설 1순위 후보지 선정,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혁신도시 기반 에너지기업 집적지(에너지밸리) 등 기존 인프라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나주에 대한 민국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주도하는 전략 거점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차세대 전력산업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형권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해남 농촌빈집은행, 한 달 만에 첫 매매 성사

철거 후 신축형 1호도 입주 완료…빈집없는 농촌마을 청신호

해남군은 농촌빈집은행사업 시행 한 달 만에 첫 매매가 이뤄졌다.

또 별도 추진 중인 ‘철거 후 신축형’ 지원사업에서도 1호 주택이 입주를 완료하는 등 농촌 유휴주택 정비 정책이 초기부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통해 화원면 월하마을에 등록된 빈집이 경기도 귀촌 희망자와 매칭돼 ‘농촌빈집은행 1호 거래’가 성사됐다.

빈집 실태조사, 현장 확인, 중개 전문가 연계 등 군의 원스톱 지원이 이뤄지면서 도입 한 달여 만에 실거래까지 이어진 드문 사례라는 평가이다. 농촌빈집은행은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등록·공개하고 매도·매수 희망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와함께 송지면 학가마을에서 추진된 ‘철거 후 신축형’ 지원사업 1호 주택도 최근 입주를 마쳤다. 귀촌·귀향인이 본인 소유의 빈집을 매입한 뒤 철거하고 신축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입주자는 해남 출신 귀향인으로, 오래된 빈집을 철거한 뒤 새 주택을 건축해 정착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빈집은행 거래와 철거 후 신축형 사업 모두 첫 사례가 나오면서 단순히 빈집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거래, 신축,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군은 철거 후 신축형 지원을 확대해 정착 예정자가 직접 빈집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착 모델을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 빈집은행 등록 확대, 정비·리모델링 지원 강화, 마을호텔 등 지역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촌 유휴공간을 지역 활력 자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9239@gwangnam.co.kr



여주시립합창단, 18일 ‘송년음악회’ 개최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로 감동 대서사시 선사 예정

여주시는 오는 18일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여주시립합창단 2025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연말 시즌의 대표 레퍼토리아자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꼽히는 헨델의 ‘메시아’를 선보인다.

12월이 되면 국내 주요 공연장에는 헨델의 ‘메시아’가 경쟁하듯 무대에 오른다. 전국적인 메시아 열풍 속에서 여주시립합창단도 남도 지역 시민들에게 이 불멸의 명작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정상급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참여하며, 소프라노 한정성, 메

무지개가 협연해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들려줄 예정이다.

1741년 작곡된 헨델의 ‘메시아’는 총 53곡,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려낸 대작이다. 제1부 ‘예언과 탄생’, 제2부 ‘수난과 속죄’, 제3부 ‘부활과 영생’의 3부 구조로 이뤄져 있으며, 특히 2부의 ‘할렐루야’ 합창은 영국 왕 조지 2세가 감격해 벌떡 일어났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서 관객이 기립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티켓은 전석 5000원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약자, 학생은 20% 할인된다. 공연 관련 문의는 여주시립합창단 사무실 (061-659-5681)로 하면 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영암, 군서면민 문화·소통 공간 어울터 기공

내년 6월 준공…여가문화실·청년 체험활동실 등

영암군은 최근 군서오일시장 옆에서 면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서면 어울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공모에 따라 건립되는 군서면 어울터는 면 소재지의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 배후 마을 서비스 공급 등을 담당하는 주요 거점시설이다.

군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781㎡ 규모의 주민 문화·소통 공간을 내년 6월까지 준공한다.

아울터에는 어르신 여가문화실, 청년 체험활동실, 행복건강실, 지역동아리방,



북카페 등이 조성된다.

우승희 군수는 “아울터가 군서면민의 자치공동체 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1년 365일 면민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함평엑스포공원 ‘겨울 동화마을’ 재탄생

호박마차·테킬라 포토존 등 빛 장식 강화

함평엑스포공원 다육식물관이 겨울빛 축제에 맞춰 새 단장을 마치고 겨울빛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구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2025 함평 겨울빛축제에 맞춰 다육식물관이 다채로운 조명과 소형물로 구성된 ‘겨울 동화마을’ 콘셉트로 재정비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육식물관 입구에서는 은은한 별빛을 머금은 공 조형물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으며 겨울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주변 화단에는 빛줄기 장식과 작은 광원들이 촘촘히 배치돼 방문객을 포근한

빛의 길로 안내한다.

특히 호박마차 포토존은 빛의 파와 화려한 조화가 어우러져 동화 속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또한 전시관 곳곳에는 판다·코끼리·토끼 등 동물 모형과 작은 조명구, 수국 장식이 함께 배치돼 아기자기한 동화 속 마을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전달한다.

이상인 군수는 “빛과 희망이 가득한 다육식물관 ‘겨울 동화마을’에서 올겨울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